

십자가 만들기

신학박사 조 덕운



이 사진은 내가 이번 주에 손수 만든 십자가를 시골 집의 거실 벽에 걸어 놓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직접 만들면서 느낀 몇 가지 묵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한 동기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다만 만드는 과정에서 주 예수님께서 못박혀 달리신 바로 그 십자가를 내가 만드는 십자가를 통하여 느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버지니아 쉐난도어 산골의 이 초라한 시골 집의 거실 벽에 걸어 놓을 십자가를 가게에서 사거나 아마존에서 주문하는 것 대신에 직접 백향목 (Cedar Tree) 가지를 잘라 목공구를 사용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통 공구의 사용은 최소로 하고 손공구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의 내벽을 치장할 때에 레바논에서 가져다가 사용한 고급 목재입니다. 나의 땅에 몇 그루의 백향목 나무가 있는데 베어 놓았던 한 그루에서 1 인치 미만 직경의 작은 가지를 잘라 십자가의 재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바로 그 백향목 나무입니다.



우선 십자가의 치수에 관하여 구글해 본 결과 수직목과 수평목의 비율이 10:6, 교차점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의 비율은 3:7 이 보편적인 비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율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이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나는 수직 부분과 수평 부분으로 사용할 길이를 고려하여 수직목을 9 인치, 수평목은 5.4 인치로 잘라서 비율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들게 된 생각은 예수님 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전통식 공구가 없었으므로 목재를 정확히 똑 바로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오늘날 홈디포에서 살 수 있는 기계로 제작한 그런 반듯한 치수의 목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마도 목공이 손공구를 사용하여 다듬은, 약간은 자연스러움이 있는 목재로 된

것이었으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그런 십자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나무 껍질을 제거하고 돌출 부분들을 정성껏 다듬어 되도록 바르게 만들고자 애썼습니다. 아래 사진은 중간 결과와 공구들을 보여주는 작업 테이블 사진입니다.



이 십자가의 수평목을 다듬으면서 든 생각은 예수님의 양손이 여기쯤에 못박혔겠구나, 하면서 그 부분을 쓰다듬고 정성껏 칼로 평평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못박혔을 때와 매달려 계셨을 때에 그분이 느꼈을 엄청난 통증을 느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직목을 다듬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모아 발판위에 두고 양발에 못을 박았을 그 지점을 가늠해 보고 거기에 못 박았을 때와 그 후에 숨을 거두실 때까지 느끼셨을 말할수 없는 통증을 느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 부분을 칼로 다듬었습니다.

수평목과 수직목이 교차하는 부분을 각각 톱으로 절반 두께씩 잘라내어 직각으로 교차하도록 하고 나무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 바로 위에 주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이 부딪쳐 머리와 이마를 찢어서 피흘리게 만들었을 것이며, 그 바로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명패가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곳들을 쓰다듬고 칼로 평평하게 다듬으면서 참을 수 없는 울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통 당하고 죽음을 당하셨구나, 말할 수 없는 신체적인 고통에 더하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 어깨 위에 모두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그러한 생각에 나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희생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 나의 온 몸과 마음이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리마데 요셉이 몇몇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나무에서 조심스럽게 내렸을 때에 어떻게 못들을 빼어 내었을까, 그분께서 더 이상 통증을 느끼시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흉악한 못들을 빼어 내고, 준비한 고운 아마포로 그분의 몸을 정성껏 싸서 요셉 소유의 굴 무덤으로 옮겨 안치했을 과정을 생각하고, 그들 마음에 있었을 큰 슬픔, 그리고 정성과 주님께 향한 헌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 장]"를 조용히

부르면서 주께서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했습니다.

1.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줄 알고 버리네
2.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맘을 버리네
3. 못박히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4. 온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내 손으로 만든 나무 십자가를 거실 벽에 못을 박아 걸고 그 앞에서 나는 나를 포함하여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속량하기 위해 주 예수께서 지불하신 말할 수 없는 큰 희생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 십자가 만들기의 경험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희생을 평소보다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나무 가지를 골라서 목공 공구를 사용하여 십자가를 만들어 보신다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감동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비드 역병 상황에서 면역을 잘 유지하시고 주변의 위험을 피하는 지혜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